

# 반포대전 승자 삼성-포스코... '후분양'으로 강남 거점

## 강남 재건축 수주대전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강남 재건축 수주를 위해 수개월 동안 치열하게 경쟁했던 '반포대전'의 승자들이 정해졌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권은 올해 5년 만에 도시정비사업에 복귀한 삼성물산이 가져갔다.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따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원 1625명 중 1316명이 투표한 결과 삼성물산이 686표를 받아 5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수주에 성공했다. 5년 만에 정비업계에 복귀한 삼성물산으로서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수주에 이은 쾌거다.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 1490가구를 재건축해 지하3층~지상35층, 17개동 2091가구 규모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8087억원 규모다.

### ◆반포3주구, 삼성물산...신반포15차에 이은 쾌거

반포3주구를 수주한 삼성물산은 100% 준공 후 분양과 공사기간 단축을 내세웠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에 이어 반포3주구까지 수주한 삼성물산



반포3주구에 걸린 시공사 선정 총회 현수막.

### 삼성물산

신반포 15차 이어 수주 성공  
상품·기술력 서비스 총동원  
가치 돋보이는 아파트 건설

은 래미안 20년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포3주구를 새로운 랜드마크로 건설하고, 차별화된 주거 문화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해외 유명 설계사와 협업해 정제된 분석의 형태를 모티브로 한 랜드마크 외관 디자인을 제시하고, 단지 중앙에 축구장 3배 규모의 자연숲을 조성하는 등 압도적인 조경을 선보인다.

래미안의 축적된 노하우로 대안설계를 통해 가구 당 평균 8㎡의 확장 가능한 면적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평면을 제시했다.

여기에 반포3주구 상가를 위해 글로벌 상가 컨설팅사와 협업해 차별화된 디자인과 브랜드 구성, 활성화 솔루션을 제공해 프리미엄 복합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탄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역량을 바탕으로 100% 준공 후 분양 등 최상의 사업조건을 제안했으며, 획기적인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빠른 사업추진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은 "삼성물산의 상품, 기술력, 서비스 역량을 총동원해 래미안 20년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들겠다"며 "삼성엔 고객만족과 신뢰를 가장 우선시하는 회사로, 그동안 준비하고 약속드린 사항은 반드시 지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돋보이는 아파트를 건설하



반포21차 아파트에 내걸린 재건축 현수막.

### 포스코건설

GS건설 제치고 시공권 수주  
공사비 1020억 275가구 신축  
후분양으로 조합원 부담 없애

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신반포21차 시공권 확보 '이벤'

신반포21차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벌인 포스코건설과 GS건설 간 대결에서는 이번이 일어났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GS건설을 제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간 것. 포스코건설은 지난 28일 서초구 잠원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108명 조합원 중 64표의 동의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 단지명은 '신반포 크레센도(가인)'다.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은 공사비 약 1020억원, 3.3㎡당 676만원 수준으로 지하4층, 지상 20층, 275가구로 신축될 예정이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았으나 낮은 발주 공사비로 1회 유찰됐지만 국내 대형 건설사간 경쟁입찰이 성찰돼 조합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으로 반전이 됐고 그 결과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맡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원 부담 없는 후분양' 공약은 포스코건설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후분양은 아파트 건설 공정이 6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만큼 분양이 늦춰지지만 아파트 시세 상승에 맞춰 분양가를 높일 수 있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포스코건설의 강남 진출은 지난해 11월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사업 수주 이후 처음이다. 신반포18차는 그이후 실거래가가 3억이 올라 철거도 하기 전 3.3㎡당 1억원을 넘기는 기염을 토해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은 이미 하이티어급의 회사역량을 갖고 지난해부터 강남3구에 가시성이 좋은 요지에 전략적으로 참여해 강남아파트의 리딩브랜드가 될 수순을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헬스케어 펀드 주목

작년 악재 연속 헬스케어 펀드  
최근 3개월 수익률 11.96% 달해  
ETF 우수... 해외펀드도 '주목'

제약·바이오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판매 중지 상태, 신라전 임상시험 중단 등 잇단 악재로 0.29% 수익을 내는데 그쳤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헬스케어와 언택트(Untact·비대면) 관련주는 증시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으며 신성장 동력을 갖춘 차기 산업군으로 꼽힌다. 전염병 공포로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이 전망되면서 관련 주도주를 담은 펀드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26개 헬스케어 펀드의 지난 3개월간 수익률은 평균 11.96%를 기록해 모든 테

마 유형 중 가장 높았다. 뒤를 잇는 코스닥벤처펀드(8.69%), 금펀드(6.33%)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성과다. 한 달 이상 수익률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것도 눈에 띈다.

상장지수펀드(ETF)가 대체로 우수한 수익률을 보였다. 미래에셋TIGER 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이 3개월 동안 26.5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다. 삼성KODEX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26.52%), KBKBSTAR 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25.74%)가 뒤를 이었다. 이 상품들은 이 상품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헬스케어, 유한양행 등 제약·바이오업종을 대표하는 우량주들을 주로 편입하고 있다.

20%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만 87종 중 16개에 달한다. 운용설정액이 1225억원으로 가장 큰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A-E의 수익률은 1개월간 4.80%, 3개월간

8.74%로 집계됐다.

국내 제약·바이오업종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다. K-바이오가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으로 이름을 떨치며 세계 시장 진격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이달말 SK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분기에도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돼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범위를 넓혀보면 해외펀드 수익률도 높게 나타났다. DB차이나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UH)[주식]종류A-E가 대표적이다. 연초 이후 29.96%, 최근 1년 동안 51.74%의 수익을 냈다. 중국 제약·바이오사인 항서제약, 민드레이, 우시애펙 등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미래에셋TIGER나스닥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도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상품 중 하나다. 미국 바이오 업종 ETF인 아이셰어즈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iShares Nasdaq Biotechnology) ETF(IBB), 길리어드 사이언스 등을 편입한다. /송태화 기자 alvin@



### LH, 전국 420개 현장 특별 안전점검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대형 화재 발생 등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점검을 통해 전국 LH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안전공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LH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42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대형 화재 발생 등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점검을 통해 전국 LH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안전공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LH

## 국내주식형 수익률 상승에도 자금 이탈

### 주간펀드동향

국내주식형 설정액 4444억 줄어  
수익률 1.17% 상승에 차익실현

한 주간 대형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상승했다. 다만 차익실현 움직임으로 설정액은 2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

31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주간(5월 22일~28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1.17% 올랐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가 1.71%로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다만 설정액은 4444억원 줄었다. 인덱스유형에서 3481억원이 빠져나갔고, 액티브펀드 설정액도 964억원 줄었다. 수익률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한 주

간 0.33%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브라질(13.06%), 일본(5.15%)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 섹터별로는 금융섹터가 5.31% 수익률로 수위를 기록했다.

해외주식형펀드로 197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 펀드로 소폭 자금 유입이 이뤄졌고, 헬스케어 섹터 설정액이 137억원 늘었다.

해당 기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국내 주식형펀드는 지난주에 이어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종류C-e'(3.77%)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에서는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가 18.59% 수익률로 수위에 올랐다.

한편 28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주보다 1.51% 상승한 2028.54에 장을 마감했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

(주요 헬스케어 펀드 설정액 및 수익률 추이)

(단위: 억원, %)

펀드명	운용설정액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DB차이나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UH)[주식]종류A-E	122.67	0.59	8.71	25.39	51.74
미래에셋TIGER나스닥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65.66	4.35	11.85	15.55	30.15
삼성KODEX합성-미국 바이오테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7.5	7.24	13.14	16.06	27.92
미래에셋TIGER200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173.11	3.5	21.22	19.48	20.74
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lassS-P	22.14	6.7	6.22	9.59	20.18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e2	27.81	4.49	7.15	11.24	19.74
미래에셋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C-P2e	13.36	1.21	8.68	9.33	17.64
KBKBSTAR 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67.33	6.12	25.71	25.74	17.36
블랙록월드헬스사이언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Rpe)	20.42	2.32	2.63	3.3	16.32
미래에셋TIGER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557.21	6.42	26.55	26.32	14.81